

숙련공 은퇴 공백, AI가 메운다

LG CNS, AX 솔루션 전면 확대

멈추면 끝나는 공정에 AI 투입
디지털트윈으로 이상 즉시 감지
트러블슈팅·플레이어스택 기능화
안전관리까지 AI가 실시간 대응

정유·석유화학·철강 등 프로세스 산업은 “멈추면 끝난다”는 긴장 속에서 운영된다. 유체나 원료가 연속적으로 흐르는 구조적 특성상 한 지점에서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전체 공정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높은 운영 안정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최근 AI(인공지능)와 데이터 기반의 AX(AI 전환)가 숙련된 엔지니어의 은퇴, 감각 중심 점검의 한계, 공정 복잡화 등으로 인해 기존 방식만으로는 안정성과 효율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프로세스 산업의 새로운 혁신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LG CNS에 따르면 이 회사는 프로세스 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기능화 플랫폼(IOP·인텔리전트 오퍼레이션 플랫폼)’과 ‘지능형 안전·환경 관리 체계(PSH·프로세스 세이프티 허브)’를 토대로 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IOP는 데이터 통합과 AI 기반 분석을 바탕으로 공정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한다. 실제 공장을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재현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최적의 운영 조건을 제안한다. 또 생성형 AI와 연동으로 엔지니어는 복잡한 매뉴얼 검색 없이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LG CNS가 기술 역량과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세스 산업계에 운영 효율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AX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LG CNS

있다.

LG CNS는 IOP를 기반으로 ‘트러블슈팅 지식 에이전트’와 ‘AI 비전 플레이어스택’ 등의 응용 서비스를 개발했다. 트러블슈팅 지식 에이전트는 IOP의 지식 관리 기능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고객이 보유한 데이터, 엔지니어의 경험과 전문 지식, 현장에서 발생하는 알람·진단 내역을 모두 연계해 생성형 AI가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안한다. 예컨대 베테랑의 경험을 학습해 ‘이 조건이면 2시간 후 문제가 발생한다’와 같은 인사이트를 운영자에게 즉시 제시하는 방식이다.

AI 비전 플레이어스택은 인공지능이 불꽃의 형태와 색상, 매연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제어 값을 산출하고 밸브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다. AI가 숙련자처럼 상황을

판단해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운전원의 부담을 줄이고 연소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불안전 연소로 인한 환경 규제나 민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IOP가 레거시 시스템에 분산된 데이터를 합쳐 공정 운영의 단일 관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PSH는 데이터 수집, 관제, 분석, 예측, 대응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능형 안전·환경 관리 체계다.

사고 발생 시 작업자가 모바일 앱을 실행해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A 구역에서 고소 작업 중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했다”고 음성으로 상황을 알리면, AI가 이를 분석해 사고 유형, 발생 시간, 예상 심각도, 잠재적 원인을 추론한다. AI가 도출한 분석 결과는 곧바로 시스템에 등록돼 사고 상황판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과거 유사한 사고 데이터를 참고한 조치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 관리자는 생성형 AI 기반 사고 신고 지원 시스템인 ‘인시던트 리포팅 어시스턴트’를 통해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된다.

LG CNS 관계자는 “글로벌 제조 기업들의 AX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LG CNS는 프로세스 산업의 핵심 영역인 ‘AI 운영’과 ‘AI 안전’, 이 두 축을 연결해 지속 가능하고 지능화된 운영 구조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AI와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운영 체계를 통해 고객의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조직개편·차기작… 위메이드맥스, 반등 승부수

내부 라인업 전면 재정비
AAA급 개발 ‘탈’ 동시 가동

위메이드맥스가 차기작 라인업과 개발 허브 체제를 정비하며 실적 반등을 겨냥하고 있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사 위메이드는 핵심 계열사 위메이드맥스를 중심으로 개발 역량을 집중하며 차기작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메이드맥스는 8개의 개발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거느린 개발 허브로, 내부 라인업 정비와

전략장르 확대를 통해 내년부터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위메이드맥스는 서브컬처 턴제 RPG N.O.A.H(노아)을 비롯해 익스트렉션 슈터, 액션 RPG, 모바일·콘솔 MMORPG 등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준비 중이다. 노아는 개발사 레트로캣이 맡았고 퍼블리셔는 위메이드커넥트다. ‘지스타 2025’에서 첫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또한 위메이드맥스는 AAA급 개발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 ‘탈(TAL)’을 공식 발표했다. 개발사인 매드엔진을 완전히 자

회사로 편입하며 콘솔·PC 플랫폼을 겨냥한 대작 전략을 본격화했다.

현재 위메이드맥스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1183억원, 영업손실은 30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위메이드 본사는 4223억원 매출, 영업손실 136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위메이드맥스는 개발 조직 정비와 장르 다양화, 글로벌 공략을 준비하면서 그룹 차원의 실적 반등 기반 마련에 나섰다.

/최빛나 기자 vitna@

정부, 4년 만에 과기장관회의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 첫 회의 주제
국가 AI 대전환 실현 전략 논의

이재명 정부의 첫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가 인공지능(AI) 정책을 중심으로 개최됐다. 과기장관회의는 지난 2021년 마지막 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약 4년 만에 재개됐다.

정부는 24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장관회의는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 기재·교육·외교·국방·행안·문체·산업·복지·기후·노동·중기부 장관, 금융위·개보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AI 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국가인공지능전략위 부

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총 20인으로 구성된다. 이날은 첫 회의인 만큼 김민석 총리가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국가 AI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각 부처의 AI·AX 전략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인공지능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혁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뉴스

‘어려운 용어 NO’… AI로 고객언어 혁신

LG U+, AI고객언어변환기 고도화
안내문 쉽고 따뜻한 표현으로 변환

LG유플러스가 고객 안내 문구를 AI가 쉽게 바뀌는 ‘AI고객언어변환기’를 고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어려운 표현과 전문 용어를 줄이고,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꾸는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고객 중심 소통 기조인 ‘Simply U+(심플리 유플러스)’의 일환이다.

‘AI고객언어변환기’는 임직원이 문자 안내, 공지, 상담 메시지 등을 입력하면 즉시 고객 친화적 문구로 변환해 주는 사내 도구다. 버튼으로 톤을 조절하거나 초안을 기반으로 문장을 자동 수정하는 방식으로, 공지 문구 작성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난해 1.0버전을 선보인 이후 올해 2.0버전으로 개편되면서 채팅형 인터페이스와 모든 문구 유형 변환 기능이 추가됐고, 현재까지 약 4500건이 실제 업무에 활용됐다.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진심체’ 적용이다. LG유플러스가 약 10만 건의 고객 안내 문구를 직접 검토해 다듬은 언어 데이터를 학습시켜, 고객이 읽기 쉬운 따뜻한 표현으로 자동 변환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술 용어 중심의 “VoIP는 종량과금 정책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니 유의 바랍니다”는 문장이 “인터넷화는 사용한 만큼 요금이 발생하니 유의해 주세요”처럼 간단하고 친근한 표현으로 제시된다.

/김서현 기자 seoh@



네이버랩스 유럽 제4회 AI for Robotics 워크숍 현장

/네이버

네이버랩스 유럽, 차세대 로봇 AI기술 공유

제4회 ‘AI f Robotics’ 워크숍
신규 AI모델 더스터2·애니 공개

네이버랩스 유럽이 ‘공간지능’ 기반 차세대 로봇 AI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 워크숍을 열고 더스터2, 애니 등 신규 모델을 공개하며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24일 네이버랩스 유럽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제4회 ‘로봇 공학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Robotics)’ 워크숍을 열고 로봇의 공간 이해와 사회적 행동을 고도화하는 AI 기술을 대거 공개했다. 2019년부터 2년 주기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앤드류 데이비스 교수를 포함한 150여 명의 연구자가 참석해 ‘공간지능’ 연구 성과와 미래 기술 방향을 공유했다.

올해 주제인 공간지능은 단순한 3D

공간 파악을 넘어 사물·사람의 위치, 움직임, 관계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의 맥락을 이해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이 적용되면 로봇은 새 공간에서도 지도 없이 즉시 환경을 모델링하고 주변 사람의 행동과 상황에 따라 사회적 판단을 수행할 수 있다.

네이버랩스 유럽은 로봇의 공간 및 사람 이해 능력을 확장한 신규 AI 모델 더스터2와 애니를 이번 행사에서 소개했다. 더스터2는 한 장의 이미지로 3D 공간을 구성하는 더스터의 차세대 버전으로, 상용화를 고려한 통합형 모델이다. 3D 바디 모델 애니는 메이크휴먼(MakeHuman) 데이터와 WHO 통계를 기반으로 전 세계 다양한 인체 특성을 반영해 사람을 정밀하게 표현하며 지난 6일 오픈소스로 공개돼 생태계 확장을 이끌고 있다.

/최빛나 기자

카카오, 에이전틱 AI 생태계 확장 가속

‘플레이MCP’에 ‘도구함’ 기능 추가
AI 서비스 간 연동 절차 크게 단축

카카오는 24일 모델 콘텍스트 프로토콜(MCP) 기반 개방형 플랫폼 ‘플레이MCP’에 ‘도구함’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플레이MCP는 다양한 AI 모델이 외부 도구와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국내 최초로 MCP 모델을 적용해 에이전틱 AI 생태계 확장 기반을 마련했다.

도구함은 플레이MCP에 등록된 MCP 도구를 사용자가 한국에서 선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사용자는 카카오 계정 한 번만 인증하면 ‘챗GPT’와 ‘클로드(Claude)’ 같은 외부 AI 서

비스에서도 자신이 담아둔 도구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서비스별 개별 도구 인증 과정이 생략되며, AI 서비스 간 연동 절차가 크게 단축된다.

이용자는 플레이MCP 사이트 접속 후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해 원하는 도구를 도구함에 추가하면 된다. 이후 챗GPT에서는 개발자 모드에서 MCP 서버 URL을 등록하고, 클로드에서는 설정 메뉴의 커스텀 커넥터 기능을 통해 도구함을 연결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단 한 번의 인증으로 완료되며, 사용자 카카오톡 채팅방 메시지 전송, 일정 조회, 선물함 확인, 멜론 이용 기록 재생 요청 등 실사용 데이터 기반 기능을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